

조 세 환

한양대학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

1. 난마(亂麻)로 얽힌 조경 전장(戰場)

1) 오늘날 조경가들이 처한 현황(戰況)

날씨가 춥다. 한파만큼이나 근래의 조경계가 어렵다. 더하여 2014 12월의 요즘, 조경계는 ‘포털 범람 전투(Combat)’ 상태에 놓여있다. 앞친 데 덮친 격이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땅을 관리하는 우리 조경가가 손을 놓으면 당장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속 조경세대들이 갈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와 도시는 황폐한 환경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어려운 전투는 비단 지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년전부터 조경분야는 조경가들의 생업과 정체성에 관련된 수많은 법률 전장에서 격한 전투를 치러 왔다. 전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2008년에 스타트업(Start-Up)된 ‘조경기본법’을 거쳐 2014년까지 진행되는 ‘조경진흥법’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한국정원문화협회’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를 창립한 것은 우리 조경가들의 ‘공세적 전략(The Attractive Strategies)’이었다.

반면, 2008년에 시작된 건축기본법과 산림자원육성, 도시숲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서 출발하여 2014년 최근의 건축법, 수목원법, 건설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공단법 등 많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조경 면적 완화 및 기준 삭제 등을 통해 조경 업역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서고 있는 현상은 ‘방어적 전투(The Defensive Combats)’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어적 전투가 2014년 후반기에 일시에 동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투의 조합은 전쟁(War)! 그렇다면, 우리 조경가들에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올 해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마포석유비축공원화’, ‘서울역고가하이라인파크’ 등 공원화 사업의 건축 업역으로의 전환은 조경분야에서 핵심적 업역의 하나인 ‘공원’마저 타 분야의 업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경가들이 전투다운 전투도 치루지 못하고 조경의 거점 고지를 적에게 넘겨준 ‘충격적 패배(The Shocking Defeats)’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란한 전투들에 직면한 조경가들은 지금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전의상실(戰意喪失)의 상황에 까지 이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 듯하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한국조경사회에서 개최한 오늘 이 기술세미나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37개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글은 여기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서 이 난국을 해결함과 동시에 21세기 지식창조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향후 40년을 위한 ‘조경 부흥 전쟁(워커라WARKLA : The War for Renaissance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s)’을 시작해야한다는 큰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2) 왜 이런 전투가 발생하는가?

왜 이런 혼란한 전투가 지속적으로, 또 근래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가? 첫째, 간접적인 이유로서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2년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 40주년 기념식’ 세미나에서 ‘조경분야의 혼돈과 대응 전략’을 논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의 변환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복잡계 사회가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잡계 사회는 과학영역에서 ‘동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고, 복잡계 사회로 진행되면 열역학 법칙에서와 같이 어떤 돌발 변수(촉매)에 의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비가역적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해 갈 수 있음을 주장한바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접적 배경으로 이 혼란한 전투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 정부 들어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규제 완화 시책의 시행 과정에서 건축계, 임학계의 잘 못된 염원(?)이 촉매가 되어 엉뚱하게 조경 면적의 완화나 관련 기준의 삭제 등과 같은 왜곡되고 잘 못된 규제 완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있다. 요컨대, 대통령이 각 부처에 지시한 규제 철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법률과 규칙, 기준 등을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에 대해 단순히 규제 철폐 또는 완화 건수를 늘리고자하는 공무원의 ‘잘 못된 생각’과 여기에 편승한 건축계의 노골적인 ‘조경계 식민지화 전략’과 임학계의 ‘업역 침탈 전략’, 더하여 국회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입법 실적 건수 올리기’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입법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가 치러야할 전투 : (사)한국조경사회가 제안한 37개의 전략 과제

오늘 이 기술세미나를 주최하는 (사)한국조경사회는 이러한 긴박하고 위급한 전황에서 응전전략으로 ‘정책’, ‘설계’, ‘시공’, ‘감리’, ‘재료’ 등의 분야에서 37개의 전략(Strategies) 및 전투(Combats)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들은 건축, 임학계와 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와 전쟁을 치러야할 수도 있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만약 승리한다면 우리 조경가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이고 조경업계의 회생에 필요한 소중한 전과를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조경가들의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 조경가들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든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한민국 조경가들이 이 중차대한 전쟁에서 승리의 희망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경계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 전쟁 경영 관점에서 본 당면 과제의 속살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설계, 시공, 감리, 재료 등 5개 분야 37개의 과제를 나열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전투(Combat)에 해당된다. 37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7번의 전투를 치러야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적 전투가 아니라 조경분야로선 ‘전쟁(War)’에 해당된다. 전쟁(War)은 단순한 전투(Combat)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다. 더하여 과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37개 과제는 건축, 임학, 토목 등 조경의 인접 전문분야 또는 중앙정부라는 조직이 배후에 있다. 이 조직과의 전쟁(War)이 이 37개 과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들의 근원이며 주적(Main Enemy)이다. 전쟁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이권’ 혹은 ‘명분’을 얻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원과 물자,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육·해·공에서 전투를 치루고, 정보전과 외교전, 심리전등을 펼치는 등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전쟁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원(육·해·공군)과 물자(무기와 군수 등), 정보를 기반으로 대승적 전략(Strategies)과 국지적 전술(Tactics)을 동원하여 전투(Combats)를 치루는 등 이 모든 것들의 조합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미사일(Missile)과 같은 전략 무기(Strategic Arms)와 대포(Artillery)와 같은 전술 무기(Tactic Arms), 소총(Rifle)과 클레모어(Claymore) 같은 전투 무기(Combat Arms) 등으로 구분된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인적 자원과 물자, 정보와 심리, 외교 등의 강약에 의존된다. 전쟁은 갖추고 있는 ‘힘’과 ‘지략’의 활용 여부에 따라 힘이 약하면서도 훌륭한 지략을 통해 승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한 여건의 유·불리에 따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게릴라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시간적 변수에 따라 ‘총력전’과 ‘지연전’을 펼칠 수 있다. 또 ‘전투(Combat)’에 지고도 ‘전쟁(War)’에서는 승리할 수 있고 반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는 등 전술과 전략 여부에 따라 국지적 전투가 전쟁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아닐 경우의 수도 있다.

여기서 묻고 싶다! 우리 조경가들의 전쟁 역량 즉, 자원과 물자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전투만 있지 전쟁은 없는 것이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전쟁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전쟁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이냐 전술이 있으며 활용 가능한 무기는 무엇이 있는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전투를 치를 것이며 그 전술은 무엇인가?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제시한 37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임학, 토목, 환경 등 전문분야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각개 전투를 치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조경가들이 가용한 인적, 물적 역량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전쟁 목표 체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과제 해결의 우선순위 선정과 해결 방법 등 전쟁 전략과 각개 전투를 위한 전술적 역량 강화, 정보 및 심리·외교전의 가용성 강화, 무엇보다도 전기한 전쟁 경영 관점에서의 새로운 총력전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개편해야할 할 필요가 있다.

3. 조경 전장(戰場)의 전쟁(戰爭) 여건 :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1) 전쟁 목적과 목표의 부재 : 왜곡된 조경의 ‘정체성과 명분 약한 전쟁

오늘 날 37개의 전투를 벌여야할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조경 완화 관련 전장의 발생은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필자의 조경학회장 시절 경험한 바를 조금 시니컬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상한 조경은 우리가 아닌 그들에겐 그 조경이 아니다. 중앙부서의 공무원, 국회의 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조경은 조그마한 공간에 나무나 심고 돌이나 놓는, 더하여 꽃이나 심는,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하지 않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그 무엇이다. 이름 하여 '길거리 조경'. 국도변을 따라 조그마한 공간에 나무 심어놓고, 돌 놓여있는, 그리고 간판 이름하여 '00조경'. 꽃집에도 '00조경' 간판은 붙어있는 조경! 우리가 꺼안고 죽어야할 조경은 적어도 두 가지, '과학(생태)과 '예술' 그리고 그 '융합'의 작품으로 성부를 걸어야할 그 무엇이지만, 그도 저도 아닌 나무 심는 소박하게 그 무엇으로 이미지화된 조경. 이런 방향으로 굳혀진 조경의 '정체성'이 오늘날 규제완화 정책이 출현하자 제일 쉽게 건수를 올릴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동시대 조경은 '지구환경변화', '이산화탄소', '생물종다양성', '저영향개발(LID)', '환경복지', '녹색 삶의 질', '녹색예술', '녹색기반', '국민 여가시설' 등의 거창한 국가적 어젠다(Agenda)로 전환하여 '조경은 없어서는 안 될 분야', '국가의 중요 정책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을 기할 수 있는 큰 방향의 틀로 조경의 정체성을 몰고가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조경가들의 명분을 제공하고 따라서 분명한 전쟁 목표가 될 수 있다.

2) 무지막지한 힘에 맞서야 하는 전쟁 : 중앙정부에서의 조경 '행정부서' 와 '조경직' 부제

37개 전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치를 전투의 상대는 건축, 임학, 토목, 환경, 도시 등 조경 주변부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학·관 조직 그리고 그와 엮인 국회의 정치적 힘이다. 지금 동시다발적인 조경 완화와 관련된 배후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등이고 이들을 등에 없고 입법 실적 쌓기에 나선 동포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조경을 조경으로 이해하고 조경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부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 곳도 없다. 이해하기 전에, 중요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하는 커녕 건축 분야는 조경을 자기의 식민지화하려는 속셈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임학, 토목 및 환경분야는 자기들의 영역으로 침탈을 기획한다. 농수산분야와 문화관광 분야는 조경을 남의 집 소보듯 한다.

최근의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를 보고 모두들 수고가 많았지만, 한편 실망이 컸음을 감추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중심광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맥락에서는 매우 좋았지만 조경의 정체성을 왜곡되게 할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경 : 도시의 꽃을 품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의 행사에서 과연 조경이 공공정책의 이름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웠다. 이 행사의 내용은 서울시가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추진해온 조경사업들과 매우 유사한 맥락에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조경은 4년제 대학을 공부할 정도의 학술적 전문성도 필요도 없고, 산업으로서의 고유 업역도 필요 없으며 다만,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하에 나무와 꽃심기 수준의 '나눔운동' 보조자 정도로 생각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렇다면, 조경은 도시를 꽃으로 품는 게 아니고 조경은 도시를 건강하게 하는 경관(생태+예술)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려야 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실천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경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분야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방향 설정을 잡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울시는 '총괄건축가'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람을 앉혀 놓으면서 서울을 '건축'을 통해 공간환경을 정비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공원화사업'도, '서울역고가하이라인파크사업'도, 심지어 '경의선공원화사업'도 조경가 없이 건축가만의 잔치로 치루거나 건축가 그룹들에 조경가 1명 끼워주는 형식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게도 건축가의 스케치를 받아 우리 조경가가 조경설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라 소수인 조경분야보다는 다수인 건축에 손을 들어주는 서울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건축 전공인 부시장의 라인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경가들은 오늘의 이런 전쟁환경 아래 전투를 치러야 한다. 이런 전쟁환경의 형성은 어제 오늘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전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 자원(무기 및 군수물품)'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무엇보다 '학·업의 인적 자원(지휘관과 병사, 전략과 전술 등)'의 총체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3) 군기와 사기가 무너진 전쟁 : 조경에 대한 비전, 충성도와 단결력의 총화 결여

6.25전쟁 때 9사단 백마부대의 '육탄 삼용사(肉彈 三勇士)'가 있다. 탱크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는 북한 인민군의 막강한 군사력

에 부딪혀 한국군은 인력 및 장비 측면에서 북한군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포탄을 지고 맨몸으로 적의 탱크에 뛰어 들어 탱크를 부수고 자신은 산화하여 적을 저지하는 정신력 즉,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3인의 병사가 뭉치는 단결력이 강력한 무기였다. 오늘날의 우리 조경가들은 조경을 위해 그런 충성도와 단결력이 있는가? 지금까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서울역고가하이라인파크사업'을 건축가 주도로 하겠다는 의도를 서울시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등이 분명히 밝혔는데, 서울시 44인의 공공조경가가 조경분야에 대한 충성심으로 같이 단결하여 서울시를 향해 몸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 사업에 우리 조경가들이 PM을 맡도록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44인의 공공조경가는 모두 사퇴 하겠다'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서울시에 맞섰다면 서울시가 아마 그렇게 쉽게 그 사업을 건축가들에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뒷골목 꽃심는 것은 조경의 '나눔사업' 전문영역으로 생각하고, 서울역고가하이라인파크나 제물포길공원화, 동부간선도로공원화 등의 큰 규모의 조경사업은 건축이나 토목사업으로 규정할 것이다. 우리 조경가들은 조경 충성도와 단결력은 한 줌의 모래 수준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4) 전쟁 목표, 전략 없이 치러지는 각개 전투

선별된 37개의 과제는 각각의 전략(Strategies)과 전투(Combat)가 각각 나열되어 있는 전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는 전쟁의 부분이다. 전쟁에 승리하면 작은 전투의 희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면 치명적이다. 전투 승리의 함이 곧 전쟁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프로 조경가도 의문을 참지 못하고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도 있었지만 정작 더 쇼크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은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아마추어 대학생 조경가들이었다.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국토와 도시가 황폐화되고, 우리들의 후속 조경가들이 타격을 입는다. 중국에 조경은 자투리땅 만을 다루는 '길거리 조경'에 머물게 되어 우리들의 조경 후속 세대들은 감소되거나 도태될 것이다. 종의 감소나 멸종은 DNA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태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조경가들의 전쟁 목적은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도시의 정주환경 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이다. 이런 건강한 환경이 성취된다면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배경이 된다.

이 전쟁 목적은 동시에 조경가들의 비전이 되기도 한다. 우리 조경가들이 전쟁을 치러야할 목적이 바로서야 명분이 서고, 명

분이 서면 37개 과제와 같은 '조경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전쟁 명분을 세우려면 과학적이고 학술적 논리 세우기와 논쟁을 거쳐야 한다. 조경학계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이러한 전쟁 목적으로서의 '명분세우기'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조경설계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를 또한번 상기해 보면, 조경분야 프로 조경가나 아마추어 조경가이거나 간에 그 양자들은 모두 '교수들이 뭐하고 있느냐, 나서라'라고 성토했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전쟁을 하려면 국익과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특히 명분 없는 전쟁은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고립을 자초하고 패할 수도 있다.

전쟁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관'을 선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군사력과 군수물자를 갖추고 좋은 전술로 전투에 임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고려 때 서희의 외교력과 이순신과 거북선 같은 지휘관, 007과 같은 정보전, 대북 빼리와 같은 홍보·심리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외롭고 고립된 위험한 전투만 할 게 아니라 우군이 있는 체계적 전쟁의 틀 속에서 각개의 전투를 치러야 한다. 동시대 조경계는 학·산·관의 범군사를 일으켜 일대 전쟁으로 이 난국의 시대를 맞받아 쳐야한다는 말이다.

4. 조경 부흥을 위한 전쟁 경영 전략

1) '전투' 수준에서 '전쟁 체계' 로의 확장(擴戰) 필요 : 전술, 전략 무기체계 구축 전략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늘 위기인 듯 하지만 사실, 기회가 된다. 오늘날의 조경계는 한(恨)과 설움이 많다. 조경이라는 것이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정주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하는 거룩한 학문이고 업역인데, 그 영역들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외침을 당하는 수세적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하반기에 일어나는 조경 업역과 관련된 녹지완화와 축소 등의 법률 개정이 동시다발적 전투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그래서 제안된 37개의 과제가 제시된 이 시점이야말로, 조경분야가 나서야할 전쟁의 명분으로 삼아 일시에 조경의 사회적 가치를 범국가적으로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는 총력전(總力戰)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조경업계에서 풀어야 할 37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제 하나하나를 각각 풀어야할 각개 전투 수준에서 '소총'이라는 개

인 화기만으로 싸워야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그 전투의 배경에는 건축, 임학, 토목, 환경 등 다른 분야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개인화기 격인 소총을 넘어 **업계와 학계가 망라되어 개별 과제 이상의 조경분야 전체적 분명한 전쟁 목표를 설정하고 학계와 업계가 연합하여 전투를 지원하는 크레모아, 대포와 같은 전술무기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로 무장하여 전면적이고 총력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단기적이 아니라 멀리, 오래 갈 수도 있는 지구전과 장기전 체제로의 전쟁체제로의 전환을 요한다.

우리 조경분야의 실 병력은 전국의 대학교에 있는 조경학과 교수(200명 정도)와 학생(4,000명 정도)를 포함한 학계 인력 4,500명(여기에는 '전조련'이라는 학생 조직도 있다), 전국의 조경현업에서 종사하는 설계, 시공, 감리, 재료 등의 업계 인력 10,000명 등 개략 15,000명의 잠재 인력이 있다. (사)한국조경학회를 포함하여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최근에 창립된 한국정원디자인학회까지 4개의 학회가 있으며,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하여 16개의 협회가 있다. 더하여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도 있어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력화 여부에 따라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울시 44인의 공공조경가 그룹'도 있다. 물자는 전투 때마다 업계에서 각출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명분 있는 일을 위한 물자 보급에 주저하지는 않는 순수성과 열정도 있다. 환경과 조경(LAK), 라펜트(LAFENT), 한국조경신문 등 정보지원체제도 구축되어 있다. LH, S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외부적 지원 부대도 있다. **다만 문제는 거시적인 '전쟁 목표의 상실'과 전략을 짜고 조직을 움직이며 전쟁을 지휘하는 총체적 전쟁 시스템 구축의 미비, 종합적 전술, 전략을 수립하고 선후를 가려 지휘해야할 지휘부의 한계, 울분만 토할 뿐 달리 방법이 없어 흐트러져 있는 조경인들(군사들)의 사기 저하 등의 난맥상도 존재한다.**

이런 전쟁 여건을 극복하여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전투적 수준의 미시적인 접근에서부터 벗어나 전쟁 수준으로의 거시적 접근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과(戰果)로서 전투를 마무리하는 틀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전투와 전쟁을 동시에 생각하지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녹지완화 법률 개정(안)이 봄에 아지랑이 피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이

시점에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소총을 들고 벌이는 전투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 이상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소통(Rifle)보다는 700개의 산탄이 동시에 나가서 일시에 많은 적을 살상할 수 있는 크레모아(Claymore)나 전술무기인 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소총과 크레모아를 동시에 쓰는 양동작전이 훨씬 훌륭하겠다. 여기서 크레모아라는 무기가 의미하는 것은 녹지 완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괄 대응하여 녹지완화의 부당성을 성토했던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일간지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는 상관없는 국토와 도시의 보전에 꼭 필요한 녹지를 정부와 정치인들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조경분야가 하는 일을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경인들이 중앙 정부를 방문하여 조경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전투 양상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에 더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무기체계는 미사일(Missile)이다. 미사일은 전투에 쓰이는 무기가 아니다. 전투와 직접적 상관없이 멀리, 전략 목표에 대규모적인 살상 공격을 가하여 적에게 아군의 위력을 실감케 함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다. **2014년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는 조경분야의 미사일급 무기에 해당된다.** 이 미사일은 조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대해 조경이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토·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 시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복지를 위해,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 지구기후변화 적응, 생물종다양성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생태)과 예술의 융합적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건축이나 산림, 환경, 토목분야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의 전문분야임을 자리 매김하게 하는 전략 무기이다. 이와 같은 성능의 미사일 무기체계를 통해 조경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리게 되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지자체 등의 녹지완화 법률 제정(안) 제출 등 조경에 반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법률이 제출된 사후에라도 대응할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미사일급 무기를 제대로 제조하지 못했다.

.....
올 해 개최된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를 미사일 전략무기 체계와 동급으로 가정하고 비평하면 이 박람회의 전략 목표

는 '길거리 조경'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국토·도시 조경의 정체성'을 시민, 서울시, 중앙정부 등 만방에 알리는 것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기획자의 잘 못된 판단으로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주제를 '조경: 도시의 꽃을 품다'로 정한 것은 문자 그대로 '길거리 조경'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국토·도시 조경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산업화사회에서나 먹힐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조경: 도시의 건강을 품다' 정도로는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료된다. 그러곤 시공분야(건설회사, 종합조경, 식재전문공사업)도 참여시켜 광장의 가운데 남북으로 길게 대규모 포트(Port)를 활용한 수목을 식재하여 거대한 숲과 계곡, 초지를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의 조경시설물을 공간에 맞게 배치시키고 거기서 시민들이 공원처럼 직접 조경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기획하여야 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수목이 미치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 지구기후변화 적응, 생물종다양성, 이산화탄소 흡수, 도시경관 형성, 정원에 숲 등을 전시하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프로그램과 학교, 회사, 조경작품 등을 설명하는 부스를 외곽에 설치한다면 우리의 조경의 국토·도시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런 거대하고 해괴한(?) 경관이 연출된다면 아마 방송, 언론 등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고 2014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는 조경분야의 미사일급 전략 무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미사일급에 해당하는 조경분야의 또 다른 무기는 5,000명 이상의 대한민국 조경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머드급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잠실실내체육관 정도의 공간에 '대한민국 국토·도시 조경 실천 결의 대회'와 같은 타이틀로 한 자리에 모여서 중앙정부 인사, 정치인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해 한바탕의 굿판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왜 국토·도시에서 조경이 중요한지? 조경분야의 정치적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조경의 역량은 무엇인지? 한 번 크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세계적 조경가를 초청하여 국제적 조경의 흐름을 한 번 보여주자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조경작품을 영상으로 한 번 보여주자는 것이다. 잠실실내체육관 정도가 좁다면 서울시청광장이라도 사용 신청을 하여 켈기대회라도 한 번 하지는 것이다. **'서울시 44인의 공공조경가'들도 서울시에 대해 일괄 사퇴 압박을 통해 마포석유비축기지공원화사업, 서울역고가하이라인파크사업의 건축가 주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고 앞으로 있을 경부철도공원화사업, 계물포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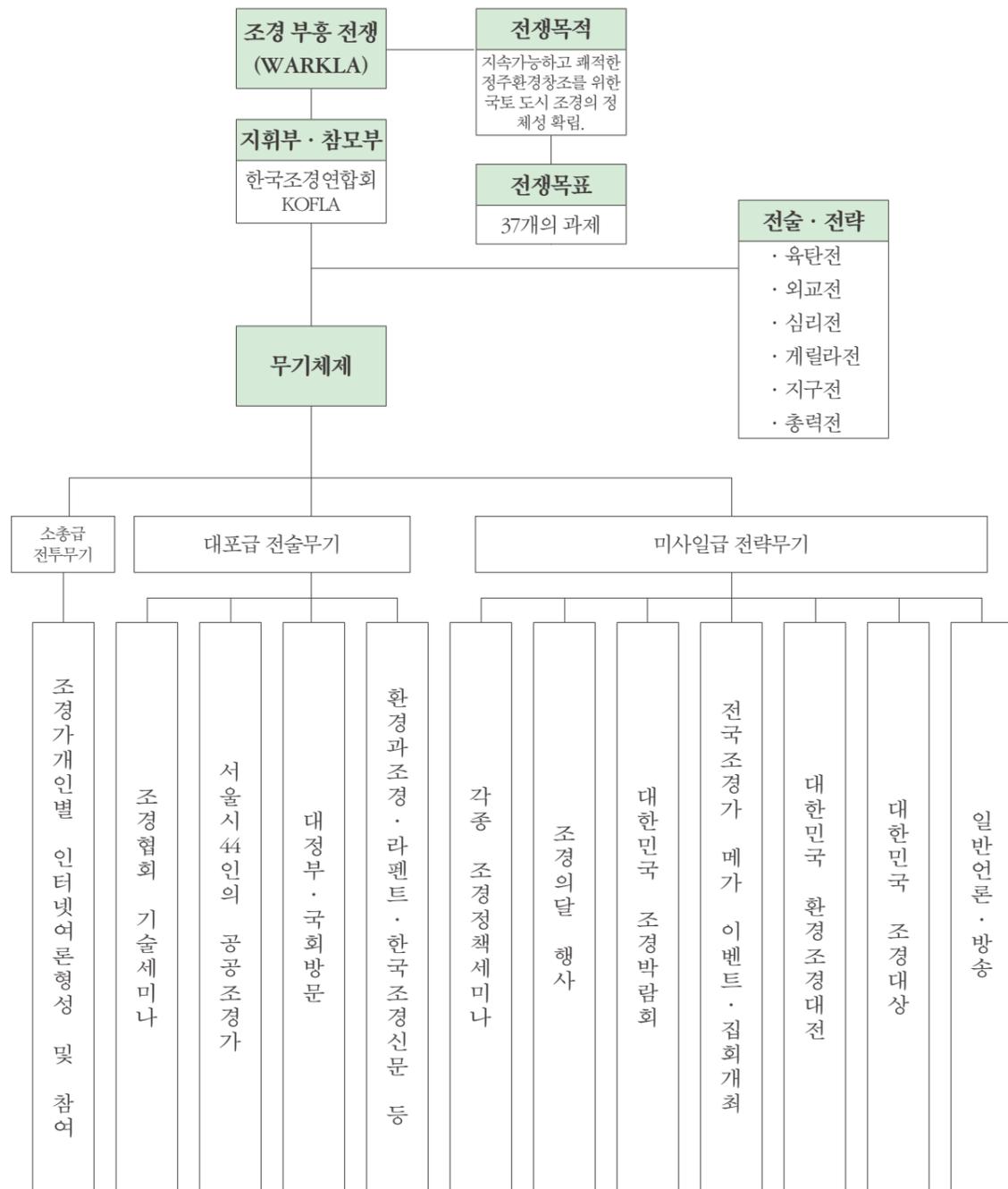
원화사업, 동부간선도로공원화사업 등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해 조경가들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경가들의 확고한 입지를 회복하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보화되어 방송,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대포급 전술 무기의 위력은 더 커질 것이다.

미사일급 전략무기는 여기에 더 있다. **세계조경연합회나 미국조경가협회 등과 국제적 교류아래 지금처럼 대한민국 조경의 '날'이 아니라 4월 한 달 동안 지속되는 '대한민국 조경의 달'을 설정하여 전략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그 안에 하루를 대한민국 조경의 날로 정하여 기념되던 한 달 내도록 조경학회들, 조경협회들, 공공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국내 및 국제세미나, 전시회,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대한민국 정원디자인박람회, 시민참여 조경 체험행사, 조경사진전, 대한민국 환경조경작품전시회, 세계의 공원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이다. 이런 미사일급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통해 언론이나 방송 등 매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보전과 심리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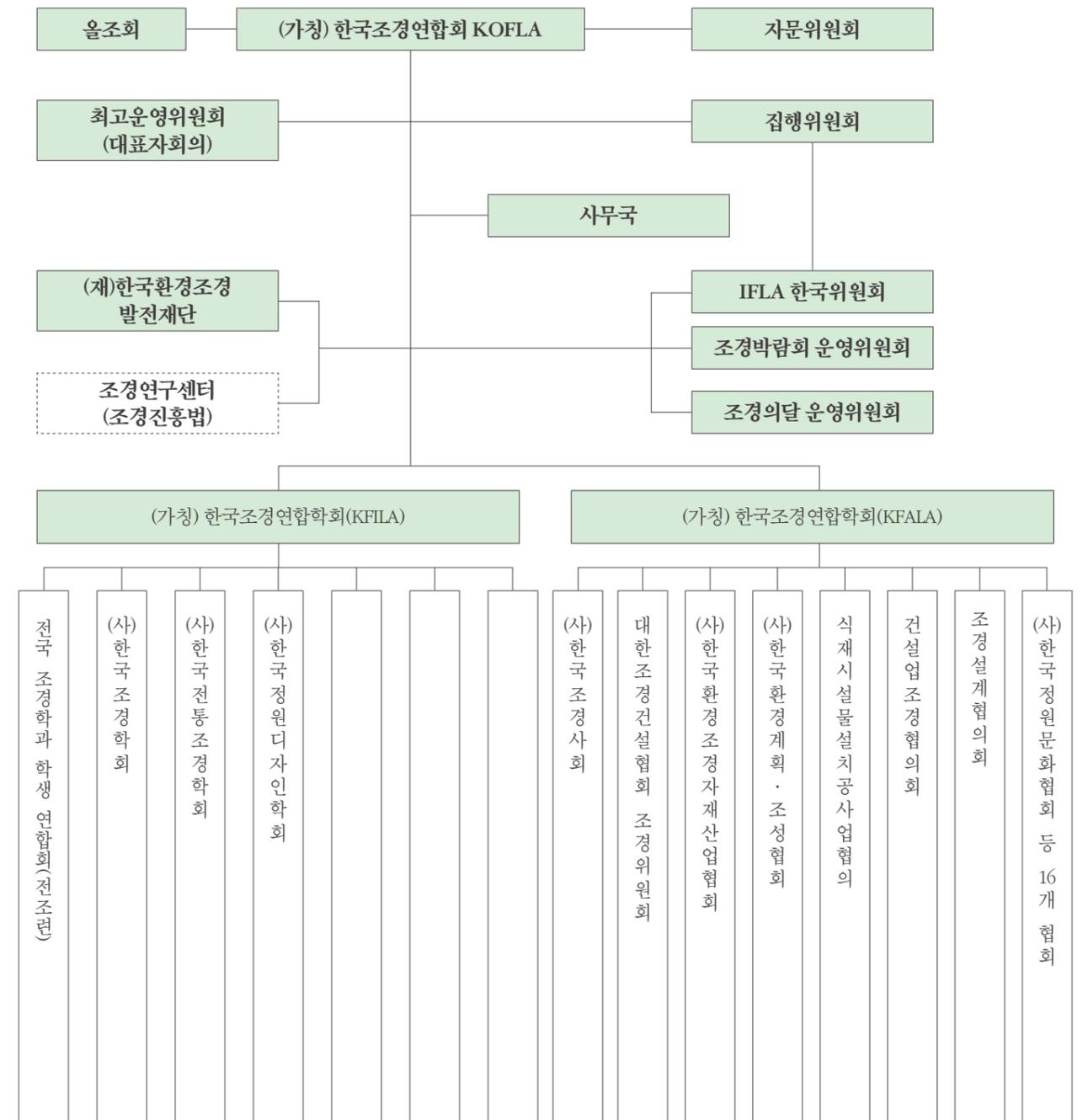
이상의 각 종 미사일급 무기체계를 사용하여 건축, 임학, 토목, 환경 등의 전문분야,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전쟁을 통해 그들은 물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길거리 조경'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 아젠다(Agenda)로 조경이 설정될 수 있는 '국토·도시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총체적 전쟁 시스템 구축 전략으로서 조경분야 학·산 조직의 통합 운영이 필요

37개의 해결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조경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미래형 대응전략으로서 '전투' 모드에서 '전쟁' 모드로 확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 시스템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즉, 조경학과 조경업 분야 모두를 통합하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휘체계,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조직체계, 물자 등을 공급하는 지원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의 통합 운영의 필요성은 또 다른 맥락에서 유효하다. 특히, 전쟁 물자(정보분석, 전략수립 등)를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표 2] 조경분야 조직 개편 체계도

(1) **‘(가칭)한국조경연합학회’(KFILA : Korean Federation of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의 결성: 조경분야 학회의 연합 및 조직의 운영**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등 학회의 힘을 조경이라는 깃발 아래 뭉치고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단결력 제고, 운영비용의 절약, 행정력 제고 등 각 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칭)한국조경연합학회를 창립할 필요가 있다.**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사무인력도 공동으로 하면 재원, 행정 등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학의 덩치를 키울 수 있고 조경 관련 문제가 발생될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합학회의 회장은 각 학회장들의 호선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칭)한국조경연합협회(KFALA : Korean Federation of Associ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의 결성**

현재 조경업 관련 협회는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하여 개략 16개 정도의 협회가 있다. 각 협회의 유기적 관계는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16개 조직을 하나의 연합협회로 결성하는 목적은 덩치를 키우고 하나의 지휘체계아래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단합된 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조경업 분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투 또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합협회 결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로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재정, 행정 등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한국조경연합회(KOFLA : Korean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의 결성**

(가칭)한국조경연합학회와 (가칭)한국조경연합협회를 통합하여 한국조경연합회(KOFLA : Korean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를 결성한다. KOFLA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조경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관련 정보와 동향을 수합·분석하며 조경분야를 지휘, 통솔하고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중단기적 전술을 구사하며 단기적 전투를 지휘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의 회장과 부회장 등은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에 관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예컨대, 최고위원회, 운영·집행

위원회, IFLA 한국위원회, ‘조경문화박람회 위원회’, ‘환경조경대전 위원회’, ‘정원디자인박람회 위원회’, ‘조경의 달 위원회’ 등-와 ‘사무국’ 등을 두게 된다.

(4)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의 기능 재편**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은 기존의 6개 단체장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합체 기능을 해체하고 정관의 규정대로 조경발전기금을 마련하고 특히, 조경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2-3명의 석·박사급 유급 연구원을 두고 정보수집, 분석, 전략 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유급 연구원의 급여는 기부금 외에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대한민국 정원디자인박람회’ 등의 수입에 의한 재단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조경분야 전체 조직체계에서 볼 때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은 (가칭)한국조경연합회 회장의지휘를 받으나 KFILA와 KFALA와는 상위 라인에서 조경분야 전체 조직을 지원하는 위치를 갖는다.

(5)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운영위원회’의 조직**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운영하던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는 앞서 언급된 (가칭)한국조경연합회(KOFLA)의 ‘조경박람회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이 박람회 개최는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수익금은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에 기부

(6) **대한민국 조경의 ‘날’을 ‘달’로 개편**

현재 3월 3일로 지정된 조경의 날을 국제 조경기구인 IFLA 및 ASLA와 공조하여 4월 한 달을 조경의 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 달에 걸쳐 (가칭)한국조경연합회(KOFLA), (가칭)한국조경연합학회(KFILA) 및 (가칭)한국조경연합협회(KFALA),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등 내부 조직과 LH, SH, 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조경 관련 조직 등이 주축, 주관하는 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시민을 위한 일련의 학술 및 기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조경분야의 전략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조경분야 조직을 ‘개설’, ‘개편’ 및 ‘통합’을 통해 고도로 체계화할 경우, 조경분야의 전쟁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재정 측면에서의 효율성의 예를 들면,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등 단체가 일 년에 지출해야하는 사무실 임대료는 거의 1억 원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 이 돈의 50%만 절약해도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절약하여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에 기부금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이 기부금으로 젊은 박사 1명, 석사 1명 등 2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어 조경분야의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한 전문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두 갈래 길 : ‘길거리조경’ 과 ‘국토·도시조경’

(1) 그렇지 않아도 조경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2014년 12월 현재의 조경분야는 동시다발적인 녹지 조성 완화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조경가들의 업역은 점차 줄어들어 위기에 모두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포자기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듯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정책, 설계, 시공, 감리, 소재 등 5개 분야에서 37개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려한다.

(2)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특히, (사)한국조경사회에서 과제로 제시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37개의 각개 전투적 차원에서부터 조경분야 전체를 아울러는 현재미래형의 ‘조경 부흥 전쟁(WARKLA)’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장(擴戰) 시켜서 풀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크레모아, 대포,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전쟁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조경분야 전쟁 목적은 조경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뒷골목 꽃나무 심기 수준 의 작고 왜소하며 좋고 없어도 그저 그만이고, 그래서 확고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래서 정책 분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거리 조경’에서 국민의 건강과 녹색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기술분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아 정책으로서의 ‘국토·도시 조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과 그를 통한 정책분야로서의 확고한 지위 획득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녹지 완화 법률안 상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건축, 임학, 도시, 환경 등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업역 칸탈’, ‘업역 식민지화’ 등의 시도에 대적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4) 조경분야의 전투를 넘어 전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쟁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데, 전쟁 체계 구축을 위해 조경분야의 학(學)과 업(業) 영역에서 조

직의 개편과 새로운 연합 조직의 개설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가칭)한국조경연합학회(KFILA), (가칭)한국조경연합협회(KFALA), (가칭)한국조경연합회(KOFLA) 등의 새로운 조직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KELAF)은 현재의 6개 단체의 연합체적 기능은 (가칭)한국조경연합회로 이관시키고 순전히 기금 모금 및 조경 발전을 위한 정보 분석 및 전략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등의 이벤트를 (가칭)한국조경연합회로 이관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으로 기부하게 함으로써 조경발전을 위한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5) 이러한 전쟁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전쟁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고 구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녹지 완화 입법 발의안에 대해 조경가들의 치열한 개별 전투는 물론, 조경 업역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 44인의 공공조경가’의 전술 무기화, ‘대한민국 조경가 대표들의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 등의 전술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또 ‘대한민국 조경문화박람회’, ‘대한민국 조경가들의 메가 이벤트 행사’, ‘대한민국 조경의 달 행사’ 등의 전략 무기화는 언론, 방송 매체의 홍보전과 결부되어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이기고 나아가 국토·도시 조경의 정체성 회복 목적의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이 또한 제시되었다.

(6)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의 외침은 단 3마디였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조경가들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되돌리기 위해 다 같이 외쳐보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조경가들이여!**

약력

- 전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 (사)한국조경학회 고문
- (사)한국전통조경학회 고문
-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고문
- (사)한국조경사회 고문